

필리버스터 7일째...선거구 '出口'될까

여 "테러방지법 수정 없다" vs 야 "토론 계속" 팽팽

확정안 국회 제출...오늘 본회의 앞 극적 타결 관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7일째인 28일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다음날인 29일 열린 예정인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 정국에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전망은 어둡다. 새누리당은 "추가 수정 없다"며 협상 채널을 당분간 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테러방지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여러 차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 이를 또 고치자는 건 '누더기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질타 말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날 중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애초 예정대로 29일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곧바로 테러방지법을 표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통과한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함께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긴급기자간담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목의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국민이 다 알게 됐다"며 "이 독소조항을 그대로 다 남겨둔 채 (선거법) 통

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민주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 감청 요건 강화, 테러위험 인물 추적권의 대테러센터 이관 등을 요구한 뒤 "새누리당이 이 3가지 요구에 대해 협상에 나선다면 탄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수정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수정안의 명분을 국민에게 호소해 수정안 통과가 국민적 감정에 맞다는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7시6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100시간을 넘긴 가운데 오후 6시 현재 더민주 이학영 의원이 23번째 주자로 계속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중 더민주 김광진·강기정·박해자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민들 필리버스터 응원

휴일인 28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방청객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362억원...19대 출범후 최저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후원금 합계가 약 362억원으로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액수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 전반적으로 모금활동이 예년에 미치지 못했던 데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무관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1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362억2980만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

245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후원금 총액은 전년(2014년)의 504억1170만원과 비교해서는 28.2% 줄어든 것이다. 평균 모금액도 전년(1억6860만원)보다 26.2% 줄었다. 지난 2014년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평년 1억5000만원)를 3억원으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은 셈이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이 1억58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억2690만원, 새누리당 1억2280만

원, 무소속 1억98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4100여만원, 전남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1억700여만원으로 후원금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에서는 박해자 의원이 1억5400여만원, 전남에서는 김성근 의원이 1억5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에서는 김광진 의원이 1억5800여만원, 박지원·이정현·김승남·황주홍 의원 등이 1억5000만원을 살짝 넘겨 모금했으며 신정훈·우윤근·이개호·김영복·이윤석 의원은 1억4000만원대를 기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임내현 사무소 개소... "담대한 변화 시작"



국민의당 임내현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에 비후보는 지난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임 의원은 "광주에서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조선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했다"면서 "이제 다시 한번 광주에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는 임 의원이 앞으로도 한 국정치 위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정진욱 '광주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국민의당 정진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8일 오후 주월동 선거사무실에서 1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광주정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치혁신 토론회를 가졌다. 정 예비후보는 "광주시민은 정치적 도전과 열정, 비전 제시 없이 기득권 현실에 안주하는 기성 정치인에게 더 이상 기대를 접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호남에 보여준 3(무관심, 무능, 무책임)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태 사무소 개소... "기쁨정치 하겠다"



국민의당 이진태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광주 서구 차평동 동원기획빌딩에서 각계각층의 지역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의 거대 기득권 세력은 서로 번갈아가며 권력을 향유해 왔지만 그 속에 정자 중요한 국민은 없었다"면서 "20년 검찰 외길 인생동안, 최진실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법안을 집행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기쁨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남재 "박대통령 '자해적 제재' 우려"



더민주 이남재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28일 모 방송 '열린토론회'에 출연, 마·중 간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해 "미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사드배치가 중국에 대한 협상용 카드에 머물 경우 사드배치에만 급급하던 우리 정부는 대중관계 악화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막대한 피해만 떠안는 '자해적 제재'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동떨어진 '나홀로 끝장제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검토를 통해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사무소 개소... "새정치 보여줄 것"



국민의당 김경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입법활동으로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지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북구 주민들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없는 사람 잘 살게 해주는 정치" "청년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정치" 등 20대 국회에 원하는 바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임한필, 민형배 광산구청장 고소



더민주 임한필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민 구청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후보자를 모독하는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민 구청장은 임 예비후보 측의 의혹 제기에서 지난 21일 "한 예비후보가, 선출직을 타겟으로 선관위를 지렛대 삼아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유정 사무소 개소... "북구 발전 최선"



국민의당 김유정 광주 북구갑 김유정 예비후보는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18대 국회에서 검증된 능력으로, 책임지고 북구 발전의 습동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박지원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장인 송태호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예비후보는 DJ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대변인과 원내대표,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

강백수 사무소 개소... "화합의 정치할 것"



국민의당 강백수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나주정치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화합과 소통으로 나주·화순의 정치 질서를 바로 잡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승리를 기반으로 정치개혁과 2017년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넓은 정치판을 바꾸는 데 지역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형근 "주거·출산·육아문제 해결 노력"



국민의당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는 28일 "동구의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구 유입정책이 필요하다"며 "행복한 세대융합 장기대주책' 정책이 이어 '아기만(아름다운 가정만들기)'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층이 떠나는 동구가 아닌 다시 돌아오는 동구, 오래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려면 이미 발표한 '행복한 세대융합 장기대주책' 정책 등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출산, 육아, 교육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임택 "동구에 노인복지 패러다임 실현"



더불어민주당 4·13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경선에 나선 임택 시의원(동구)은 28일 '100세 시대'를 맞아 "선별적 돌보기 중심의 '경로' 정책을, 보편적 인권 중심의 '리스타트(Re-start·재도약)' 정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시의원은 이날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 유지' 방안을 통해 "동구는 전국 7대 도시 70개 자치구 중 고령화비율이 5번째로 높다"며 "고령화 도시를 기반으로 청년인재를 유입하는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실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국대회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교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투자 물건위주로 강의!

2016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6. 1. 18(월) ~ 2016. 3. 3(목)
수업기간: 2016. 3. 3 ~ 2016. 6. 9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2)230-7700~2 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목조주택 2016년 1학기 개강

3월 8일(화) 저녁7시~9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3월 9일(수) 저녁7시~9시
국립목포대학교 (목포시 남악 캠퍼스)

3월 10일(목)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남로 23)

예약 필수, 강의실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전담강사 010-5766-5754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H. 010-5766-5754

당신의 광정! 절음의 광정!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아린이(초등학생)	미취학아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토요일, 일요일	14,500원	9,000원
		5,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